

“한인 학부모들 지지 절실”

내달 6월 ABC 교육위원 출마 하워드 김 후보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인들이 어느 정도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11월6일 실시되는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 선거를 2주여 앞두고 하워드 김 후보는 지난 18일 저녁 세리토스 가마골 식당에서 열린 마지막 기금모금 파티에서 이 같이 말하고 3,000표 이상만 획득하면 당선권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에 따르면 현재 세리토스 벨플라워, 아테시아를 관할하고 있는 ABC 교육구 내 한인 유권자 수는 4,500여명으로 이중에서 1,000명만 투표에 참여해도 이번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LA 연합노조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김 후보는 “현직 교육위원 3명이 출마했고 다른 후보들도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누구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막판 혼전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이 지역에 높은 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는 라틴계 커뮤니티를 겨냥해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선거 막판 2주 동안 캠페인 홍보물을 또 한 차례 돌릴 계획이다. 그는 ‘다문화 지도력 개발’ ‘분노 조절을 통한 인성교육’ ‘세계 속의 시민

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세리토스 대학 평의회 후보로 출마한 티나 조 후보는 한인 최초의 평의회 위원으로 당선되기 위해 타민족들과 연대해 막판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2세인 조 후보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조 후보는 “이번 선거에 현역위원이 3명 나섰지만 당선을 확신하고 있다”며 “남은 2주 동안 유권자들에게 홍보물을 우편으로 계속해서 보내고 한인들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표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김, 티나 조 후보는 24일 오전 8시 세리토스 도서관 스카이

룸에서 열리는 세리토스 상공회의소 주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폴 강, 하워드 김씨가 후보로 나선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 선거에는 9명, 세리토스 대학 평의회 후보에는 8명이 각각 출마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문태기 기자〉



하워드 김, 티나 조(가운데) 후보 합동 기금모금 디너파티에 참석한 한인들이 당선을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